

전근대적 수준에 머무른 출판물류 시스템

일부 물류업체, 뒤늦게나마 '체질개선'에 나서

출판계의 물류 시스템은 아직 '새마을 운동 시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타 산업에 비해 물류코스트는 턱없이 낮다. 물류업체들의 난립과 과당경쟁에서 비롯된 가격하락, 물류에 대한 출판계의 이해부족 등 여러 요인들이 지금의 낙후된 물류구조를 낳았다. 전문가들은 물류시스템의 현대화가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으지만 뾰족한 해결방안은 없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

흔히 산업의 '대동맥'으로 비유되곤 하는 물류는 현대 산업의 기계화·전산화와 더불어 갈수록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의 산업이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생산전' 양상을 띠었다면, 현대 산업은 각종 첨단 설비를 동원한 '수송전'에서 승부가 난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하지만 출판계의 물류구조는 1970년대 새마을 운동 시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도 창고·배송업에 종사하는 직원은 '동대문 지게꾼'이나 '등짐꾼' 정도로 여겨지고 있다. 이들은 일주일에 평균 35~40시간에 이르는 시간의 근무를 하지만 임금은 턱없이 낮다. 창고·배송업은 전형적인 3D 업종의 하나로 취급받고 있고, 실업자가 100만명을 웃도는 요즘에도 인력난에 허덕이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물류업체의 과당 경쟁이 문제

현재 국내에는 모두 25개 안팎의 창고·배송업체가 난립해 있다. 이들은 창고와 배송을 동시에 하는 날개물류와 문화유통박스, 지방배송을 중심으로 영업하는 북뱅크 등 50~60대의 트럭을 갖춘 메이저급에서 트럭 두세대로 영업하는 '리어나 장수' 수준의 업체까지 천차만별이다.

지난 10년 동안 책값은 두배 가까이 뛰었지만, 배송 수수료는 거의 인상되지 않는 현상은 이런 과당경쟁 때문이었다. 10년 전에는 디젤 연료가 1l 당 200원이었고, 배송료는 30~40원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1l 당 디젤 연료의 가격이 700원으로 대폭 인상된 데 비해, 배송료는 40~50원 정도

다. 배송료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다. 물류 업체는 인건비와 '기름값' 대가에도 벽찬 실정. 시설투자는 엄두도 못내고 있다. 문화유통박스의 이영복 상무는 "소자본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는 업체의 '제살 깎아먹기' 경쟁 탓도 있다"고 털어놨다.

물류업체와 출판계 전문가들은 "물류구조를 합리적이고 현대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현재의 구조에서는 별다른 해결책이 없다고 말한다.

북뱅크 임한식 상무는 "지금의 낮은 물류비로는 시설의 '전산화·기계화'라는 구호는 한낱 공염불에 불과하다. 물류비가 최소한 정가의 1% 정도는 돼야 배송업체를 운영할 수 있고 시설과 서비스에 재투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합리적이고 자동화된 물류시스템 요구돼

최근의 '낙원사 사태'는 업체뿐만 아니라, 출판계에도 물류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해준 중요한 계기였다. 일부 물류업체들은 낙원사 사태 이후 '체질개선'에 나섰다. 보관료와 배송료를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날개물류는 오는 4월부터 배송 수수료와 창고 사용료를 현실에 맞는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조석현 상무는 "가격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다. 지금의 가격 구조로는 매출이 오를수록 적자폭만 커질 수밖에 없다"고 인상 이유를 밝혔다.

물류업체의 창고에 쌓여 있는 '악성 재고'를 줄이는 것도 원활한 물류구조를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다. 현재 이들 창고에는 '잠자고 있는' 책이 창고면적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창고 임대료 및 보관료가 워낙 싸기 때문이다. 출판사들이 이들 책만 처리하더라도 한결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게 물류업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출판사들 사이에서도 낙원사 사태가 물류업체에만 책임을 돌릴 수 없다는 반성과 함께, 이번 기회에 물류구조를 개선해보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물류업체가 무너지면 출판사의 영입이 정지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한편, 출판사들 스스로도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출판계는 합리적이고 자동화된 물류시스템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낙원사 사태로 곤욕을 치른 백의 유헌욱 대표의 말이다.

한국출판협동조합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최선호 이사장은 "과주물류센터부지에 연건평 5천평 규모의 물류창고를 지을 계획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창고보관업과 배송업도 결합 것"이라고 밝혔다. - 최갑수 기자